

公務員과 讀書

崔 濟 萬

「公務員과 讀書」라는 題目으로 글을 쓰자 하니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도 그럴것이 率直히 말해서 讀書를 勸獎하는 行政府 主管事務를 보면서도 여기에 다한 抱負와 熱誠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職場에서 同僚들의 身上「카아드」나 身元調査等を 들여다 보면 十中八·九 趣味欄에「讀書」라고 적혀 있는 것이 普通입니다. 또한 最近 文敎部에서 今年度 讀書週間 標語를 懸賞 募集하였는데 總應募者들을 職業別로 나누어 보면 學生 다음으로 많기는 亦是 公務員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公務員들의 讀書에 대한 趣味나 關心은 남 못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要는 이 讀書를 어느 程度 誠實하게 實踐하고 있는가가 問題일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다음에 먼저 公務員과 讀書와의 關聯性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公務員이란 職業은 讀書를 아닐 수 없는 職業의 하나입니다. 특히 第二共和國의 樹立과 더불어 強調되고 있는 職業公務員制度의 確立은 이러한 必要性을 더욱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最高學府를 나왔거나 어려운 考試나 銓衡에 合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任命되었거나 或은 補職이 달라질 境遇에는 그「포지션」에 대한 새로운 專門의

知識이 必要할뿐만 아니라 오늘의 行政事務는 縱·橫으로 密接하게 連結해 있으므로 非但 自己가 맡은 分野만이 아니라 他部門에 대해서도 넓은 知識을 갖추지 아니 하면 圓滑한 職務遂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公務員은 이미 自己가 쌓은 知識과 經驗을 最大限으로 活用해야 함은 勿論 그 때 그 때 새로운 知識의 擷取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를 充足시키기 위한 方法으로서도 「讀書」는 가장 賢明한 手段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公務員은 國民의 公僕으로서 또는 國家의 代表者로서 國內外 各界各層 人士들과 자주 接觸해야 할 立場에서 있으므로 高尚한 人格과 참된 教養을 몸에 지녀야 하므로 여기에서도 또한 讀書의 必要性은 痛感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公務員은 比較的 讀書하기에 알맞은 環境에 놓여 있습니다. 大體로 公務員의 執務時間은 特殊公務員이나 어느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每日 一定한「코오스」위에 있고 事前에「프렌」을 세워 充分히 그 機會를 善用하는 誠意만 있다면 事務進行中에도 一部 時間을 硏究를 위한 讀書로 利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公務員은 남보다 부지런히 讀書를 해야 할 職分에 있고 또한 어느 程度 讀書하기에 足한 餘暇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果然 全體公務員들이 얼마만큼이

나 讀書에 忠實하고 어떻게 讀書을 하고 있는가는 — — 調査해 보지 않는限 어떻게 推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指摘하고 싶은 것은 公務員이 讀書할 수 있는 條件—특히 그 施設이 어떤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各 官公署 實情을 볼 때 이렇다 할만한 職場圖書室을 꾸미고 있는게 果然 얼마나 될지 疑問이 아닐 수 없습니다. 敎養部門에 關한 書籍까지 網羅하여 所屬 公務員들로 하여금 그들의 온갖 讀書 意慾을 充足시켜 줄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까만 最少限 그 機關에서 必要로 하는 專門書籍乃至 參考 文獻이라도 具備된 圖書室이 高루 마련된다면 이 얼마나 多幸이겠습니까.

아무리 讀書에 대한 意慾이 크고 또한 讀書할 수 있는 時間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俸給만한 生活難에 허덕이고 있는 公務員들에게 修養圖書아닌 값

비싼 專門書籍까지 사서 보게함은 너무나 無理한 일이며 이러한 施設은 依例히 그 機關에서 차려야 함이 마땅할 뿐더러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라 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圖書施設이 차츰 新設·完備되어 비록 公務員에 대한 經濟的 保障은 위로 미루더라도 그들에게 마음의 糧食이나마 부어 줄 수 있다면 이는 오늘날 매마른 公務員들의 生活를 한결 부드럽고 明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行政能力을 昂揚함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十月달은 「文化의 달」 그리고 讀書週間이 國民運動의 하나로 展開되는 讀書의 季節입니다. 이 때에 우리 公務員이 보다 더 冊을 벗 삼고 職務를 즐기는 習慣이 몸에 배도록 서로 서로의 創意와 實踐이 倍加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筆者 文敎部 社會敎育課 事務官)

國會議員과 讀書

任 石 宰

國會議員과 讀書이라고 하면 꾀이나 因緣이 많은 것 같지만 別로 그렇지 못하다. 國會圖書館을 訪問하는 손님들이면 例外 없이 議員들의 圖書館 利用 狀況을 묻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利用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對答을 하면서도 무엇인지 주저해질 때가 있다. 議員들 중에 圖書館을 利用하는 분이 別로 많지 않다는 理由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議員들의 職務가 方法乃至는 重要 國策決定等 政治的인 活動에 있으며 學生과 같이 學業을 닦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

둘째 議員들은 職務上 特別히 對人關係 活動에 있어서 多忙하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議員中 大多數는 一段의 基礎的인 學問은 履修한 분들로서 政治的 社會的인 活動이 이미 實踐的 段階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네째 議員들中에는 그의 個人藏書를 많이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圖書館 利用의 必要가 없다는 것.

다섯째 一部 議員들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不足과 倦怠에서 利用을 잘 않는 것.